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부패한 자는 결코 자유인이 될 수 없다”고 누가 말했는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일정을 취소했다. 당선자도, 그리고 일부 언론도 그러한 결정이 매우 잘못된 것으로...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자라면, 예...

누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가

정대로 찾아가 만나서 “한 가지만 먼저 충고하겠다.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정치란 다양한 계층의 서로 상충하는 권익을 공동선(共同善)의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역할...

당선자 시절, 이미 약속되었던 민주노동당...

오르면 타고 온 뗏목을 버려야 하듯이, 당선되기 이전까지의 ‘나’를 버리고, 더불어...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가야 할 길은 과거로의 단순회귀가 아니라, 개발시대와 그 이후 10년을 통합하고 뛰어넘어 세계...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가야 할 길은 과거로의 단순회귀가 아니라, 개발시대와 그 이후 10년을 통합하고 뛰어넘어 세계...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불안 가운데 하나는 정체성의 혼란이다. 이 나라,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동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불안 가운데 하나는 정체성의 혼란이다. 이 나라,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가야 할 길은 과거로의 단순회귀가 아니라, 개발시대와 그 이후 10년을 통합하고 뛰어넘어 세계...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가야 할 길은 과거로의 단순회귀가 아니라, 개발시대와 그 이후 10년을 통합하고 뛰어넘어 세계...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가야 할 길은 과거로의 단순회귀가 아니라, 개발시대와 그 이후 10년을 통합하고 뛰어넘어 세계...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가야 할 길은 과거로의 단순회귀가 아니라, 개발시대와 그 이후 10년을 통합하고 뛰어넘어 세계...

시설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개설 재추진해야

지난 2월 말 국회 통과 무산으로 좌절됐던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개설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과기원 학사과정은 광주의 R&D 특구 조성, 전남의 서남권 과학 인프라 강화 등 지역 현안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역...

광주과기원은 1995년 개원 이후 지난 2006년까지 12년 연속 교수 1인당 논문 발표 수 1위를 차지했다.

광주과기원은 매년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 자원 등 학부과정 개설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개설이 비록 무산됐지만 정부 부처 간 협의, 지역 내 공감대 형성 등 성과도 있었다.

정책 실종된 광주·전남 총선 안타깝다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당이나 후보간 정책 및 공약 대결이 실종됐다...

광주·전남 후보자들의 공약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구체적 투자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뜬구름 잡기식 공약을 내놓는...

광주·전남의 특수한 정치 여건도 원인이자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접점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 모두 ‘당선’이라는 목표에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이희한



“3월17일 생쥐가 나온 새우깡, 3월19일 참치토스트에서 칼날 발견, 3월23일 모짜렐라 치즈에서 다이옥신 발견, 3월23일 미국산 냉동 야채에서 냉동 생쥐, 3월25일 빵에서 지렁이 발견 의심...”

이번 사태는 식품산업이 세계화되면서 증폭되는 문제들이다. 중국에서 반가공된 스낵류를 들여오고, 미국에서 제조된 냉동 야채였고, 치즈는 이탈리아산이었다.

식품안전 불안 사태, 소비자의 선택은?

집에서 밥 먹을 때 국속에 빠진 알마의 머리카라 정도 빼내는 정도로 생각하는 듯했다. 내 딸만 그럴까? 너무도 의아했지만 임시전쟁 속에 있는 특별한 처지나 하면서도 영 속삭였다.

우리는 선택을 안 하면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생산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번 사태를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나게 할 수도 있지만, 도덕적인 불매와 대안물품을 찾아 구매하는 착한 소비로 생산을 이끌 수도 있다.



봄잠은 무죄



봄이 되면 겨우내 두문불출하던 동물들조차도 대부분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하마 녀석은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아예 옆으로 엎드려서 자거나 어쩔 땐 무거운 머리를 난간이나 벽면에 기댄 채 꾸벅거린다.

그러나 아무리 봄이 좋아도 이들이 결코 잠을 청하지 못할 때가 있다. 바로 배가 고플 때이다.

다. 그러다 밥을 주면 허겁지겁 먹고서 그제야 편안히 휴식에 들어갈 수 있다.

봄은 하마뿐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 같은 대부분의 고양이과 동물들을 잠꾸러기로 만들고 곯을 역시 보통 축축 늘어서서 아주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잠을 청한다.

관객들의 원성이 대단해도 사실 동물들의 봄잠은 사람들의 춘곤증과 더불어 생체리듬의 부조화에서 오는 일종의 생체 적응 과정이다.

쌀 효능·건강성 홍보로 소비 촉진해야

쌀 소비량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1년 쌀 소비량은 평균 76.9kg이었다.

쌀TV에서도 방송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쌀을 주식으로 삼았다. 밀가루와 빵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들이 왜 쌀을 선택했을까?

Advertisement for 'The Kwangju Ilbo' featuring a 'No Equal' (無等鼓) logo and text about the newspaper's quality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보험 가입 때 내용·특약사항 꼼꼼히 확인을
보험 가입 때에는 친절하던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갖은 이유를 들먹이며 까다롭게 군다.